

喘翁先生文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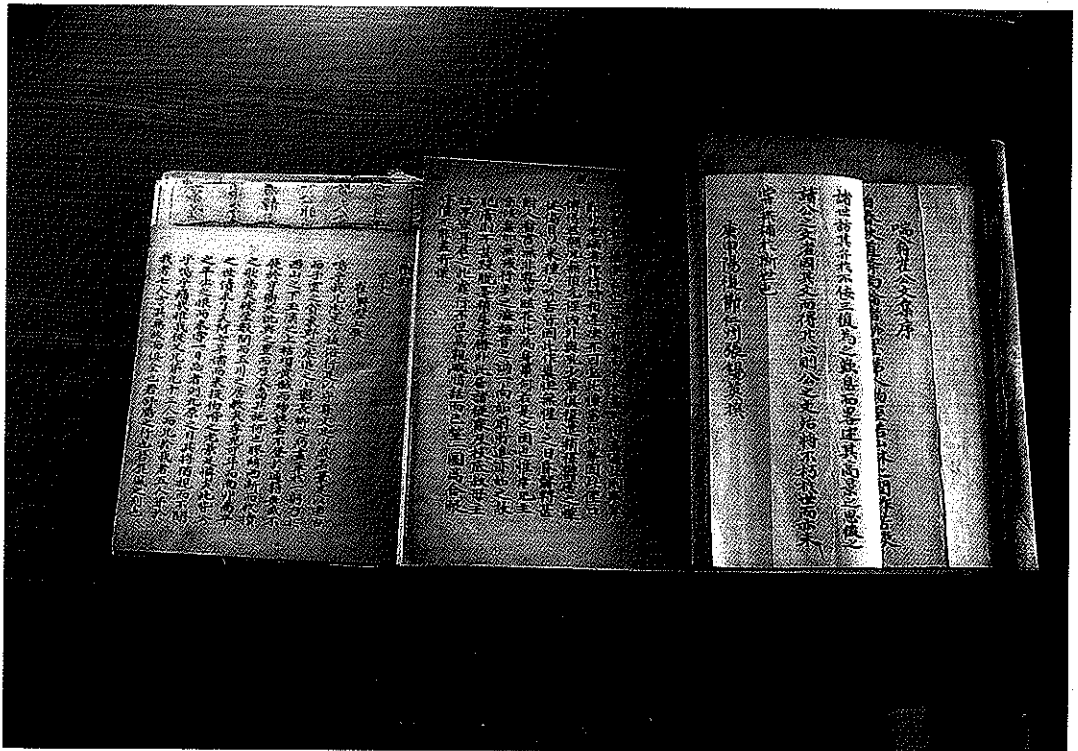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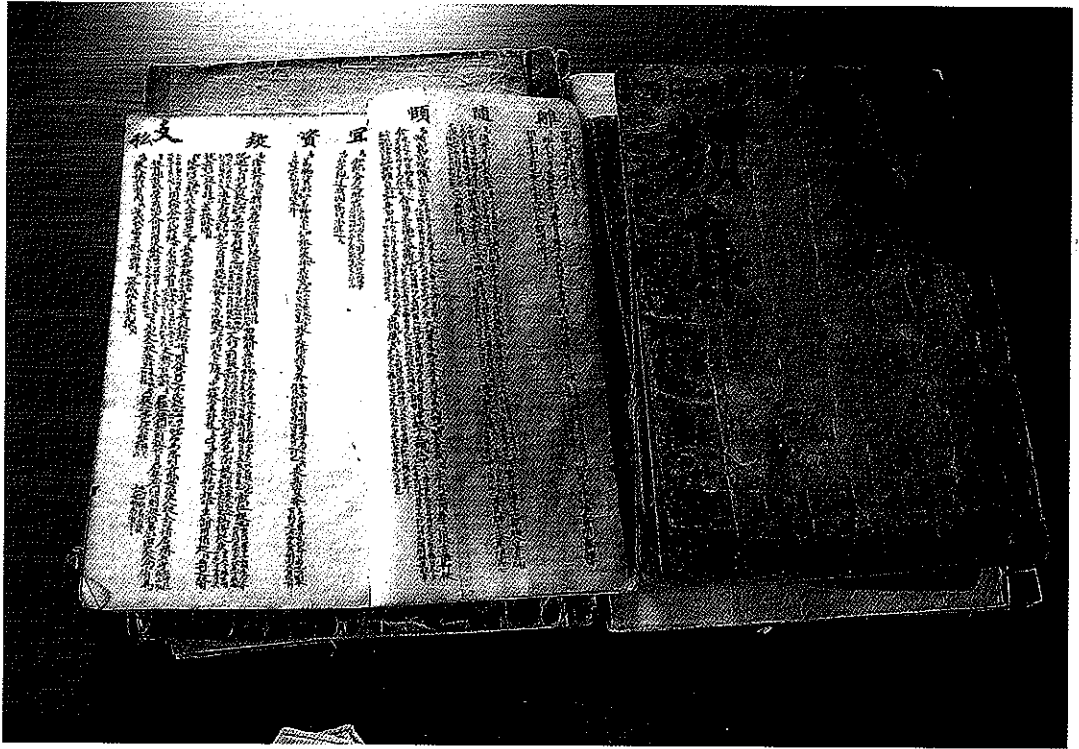
## 喘翁先生文集 正誤表

頁	行	正	誤	備考
2	4	擔 근	공란	原文 5p 6行참조
5	1	喘翁先生	文集序 삭제	不必要
24	끝줄	穩 온	穩 은	原文 21p 참조
38	5	집안에	집에	
43	5	寥 료	廖 료	原文 28p 참조
94	1	牀 상	狀 상	原文 44p 2行 참조
115	8	壘 류	壘 누	
148	6	與여求구	與영永구	p65 원본보기
160	끝줄	아이들	이이들	
162	4	表兄(외종 兄)	表兄(고종 兄)	
176	1	隱 은	隱 은	原文78p 1行 참조
223	8	宿 숙	病 병	原文 99p 5行 참조
225	6	寢 침	寢 침	原文 100p 4行 참조
229	6	아침	날과	
232	9	尙 상	尙 당	原文103p 9行 참조
242	2	毅仲 의중	毅中 의중	
265	13	추중	추중	
272	4	麓 록	麓 록	原文 122p 2行 참조
294	9	浹 협	陝 합	
301	1	天年	千年	原文 133p 4行 참조
305	6	牖 유	牖 변	原文 137p 7行 참조
314	8	高弟 고제	高第 고제	

※ 여러 차례에 꼼꼼히 교정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자가 많아 정말 죄송합니다.

문집을 보시다가 오자가 있을시 항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喘翁先生 遺墨



천옹선생문집서  
喘翁先生文集序

自春秋道降尙論者觚墨第人物至若山林之間作苦澹家計老死而無  
 悔者無與焉噫道之所以不明而世教之所以衰也余嘗讀喘翁先生崔  
 公遺事竊歎其從事六經之學而眞實之志刻苦之工有足以補世教而  
 惠後人而竟亦泯滅窮山遂不得有爲於一時也蓋公早自齟齬文藝夙  
 就筆法勁健若將長驅濶步汗籍湜而跨鍾玉矣及登百弗之門深有得  
 於主敬之旨而並時名碩如立齊蠹窩之賢磨礱其道義成就其德行是  
 其躬行孝悌推之百度謹慎慈諒律之繩尺不以貧窶動其心不以夷險  
 易其操一念戰兢七十年如一日要之是清修苦節篤學力行有非後之

操觚之士所可窺其彷彿也當是時也弗翁秉拂於南方爲後學之山斗  
 而如公之隱居行義輩出於其門下一代賢人之盛何其壯也今日域中  
 道義亡而功利行仁賢之風掃地而盡嗚乎其可悲也公之遺文散佚殆  
 盡而拾其一二詩書文今若干篇曾孫國述方謀所以壽之梨而公諸  
 世訪其弁於不佞三復爲之歎息而略述其高景之思後之讀公之文者  
 因其文而得其心則公之文殆將不朽於世而未嘗無補於斯世也

仁州 張錫英撰



## 천옹선생문집서문

성인의 도가 떨어졌음에 옛 사람의 언행을 따르다 하는 허울 좋은 사람들이  
만약 사람에서 어렵게 살다 늙어 죽으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슬  
프도다. 도는 밝지 못하고 세교는 쇠퇴해 있구나. 내가 일찍이 천옹선생  
최공의 유사를 읽고 그가 육영의 학문에 마음들을 다하여 이른 진실한 뜻과  
힘쓰는 공부가 세상의 교화를 도우려고 후인들에게 배울 것이 충분했으나 공한  
산중에 묻혀서 한때라도 써보지 못하였음을 가만히 탄식했다. 공은 일찍  
이 어릴 때부터 학문과 기예가 이루어졌고 또 필법이 글세어서 장차 크게  
활보하여 전과 식(張籍과皇甫湜) 唐나라의 학자로서 두 사람 모두 韓愈의  
門人(을) 받나게 하고 清나라의 학자인 蔣生芝의 字(을) 따라갈 수 있었  
는지라. 백불암선생 문하에 나아가 교의 主敬의 공부에 언음이 있어서 그  
때의 이름난 선배인 임제(立齋 鄭宗魯)와 두와(蠹窩 崔興璧) 같은 어진 이와  
도 의로서 서로 갈고 닦아 그 단과 행실을 이루어서 그 몸소 효제를 행하여  
백가지 범도에 미루어 나가고 은신하고 자량(慈諒)하는 것은 승척(尙尺)이나  
유법(留法) 이름(을) 저울로 삼아서 가난하여도 그 마음을 음직이지 않고 순정

(順境)과 역경(逆境)에서도 그 지조를 바꾸지 않고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조심하여 철심어련함을 하루와 같이 하였으니 오컨대 이렇게 맑게 밝고 굳  
 은 절개와 돈독하게 배우고 힘써 행하는 것은 후세에 문필에 종사하는 선  
 비가 그 비슷함도 엇볼 수 없는 것이더라. 이때에 백불암 선생께서 남쪽  
 에서 학문을 일으켜 후학들이 태산같이 우러르니 바가 되어 공과 같이 습  
 어서도 의를 행하는 선비가 그 문하에서 나오니 한 시대에서 어진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이 어찌 그리 장하지 않으리요. 오늘날 나라 안이 도의가  
 없어지고 공(功)과 이익이 앞서서 어질고 어진 풍속이 땅에 쓰러져 다하니  
 오후라 그것의 슬프도다. 공이 남긴 글이 흠어져 거의 없어지고 그 한 두  
 가지 시와 서와 문을 주워 모은 것이 이제 약간 편이 되어 증손 극술이 판  
 에 새쳐 세상에 공포하기를 도모하여 그 서문을 나에게 부탁하니 세 번이  
 나 감탄하고 대략 그 높이 사모하는 생각을 기록하니 뒤에 공의 글을 읽는  
 사람은 그 글로 인하여 그 마음을 인한다면 공의 글이 장차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일찍이 이 세상에 도음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인주 장석영 찬

喘翁先生文集序

喘翁先生文集目錄

卷之一

詩

次金士濬崇默遊聾淵亭韻

仁智亭

敬次百弗庵先生醉席韻

次溫溪李先生延諡時志喜韻

百弗庵先生輓

백불암선생만  
봉차 어제조절사 八운

奉次 御題曹節士韻

파계사송죽재용삼 흥중

把溪寺送族弟用三

興中

曉起

효기  
정이 농은 급

呈李聾隱

級

성친묘

省親墓

알선사묘

謁先師墓

무신원조

戊申元朝

제야

除夜

병중우음

病中偶吟

칠계분황시정사양종노이성재동항제근인작공산지유이귀음증일절  
漆溪焚黃時鄭士仰 李聖哉 東沆 諸君因作公山之遊而歸吟贈一絕

三一

三〇

二九

二八

二七

二七

二六

二五

二四

二三

二二

齋居夜吟 재거야음

族孫清彦족손청연 湜盆梅用李穉謙익분매용이치겸 載延韻재연음

次贈李持國차증이치국 曾臣증신

輓郭魯彦 만곽노연

次小有亭韻 차소유정음

輓族姪毅仲 만족질익중 宇鎮우진

明洞曉吟 명동효음

狎鷺亭送別趙佑汝 압로정송별조우여

聖學十圖 성학십도

太極圖 태극도

三二

三二

三四

三五

三七

三七

四四

四四

四五

西銘圖 서명도

소학도

小學圖

대학도

大學圖

백록동규도

白鹿洞規圖

심통성정상도

心統性情上圖

심통성정중도

心統性情中圖

심통성정하도

心統性情下圖

인설도

仁說圖

심학도

心學圖

경재참도

敬齋箴圖

숙흥야매참도

夙興夜寐箴圖

四八

五〇

五三

五五

五七

五八

六〇

六一

六三

六五

六八

輓族兄草廬公 興漸

七〇

次南村宋公履錫進士回榜韻 並小序

七一

輓南村宋公

七六

次李晚覺進汝東汲武陵洞八仙詩

七九

足成一律

八一

次狎鷺亭韻

八二

北溪感舊用先師贈諸生韻

八三

送別從弟士教 興壁

八四

輓郭善伯 元澤

八六

感懷

八八

庚申除夜

九〇

研經觀逝樓前古松爲風雨顛仆

賀贈孫肅玉 星岳

輓趙叔章 鎮奎

輓鄭幼輝 東璿

步族姪士矩華鎮載藥山韻

先齋與士矩會話

壬戌七月旣望敬次從先祖臺巖先生秋字韻 (一八〇二年七月十六日)

輓李巴江仲綏 經祿

次李進汝人道吟

又次四七吟

忍睡

九一 九二 九三 九四 九五 九八 九九 九九 一一〇 一一一 一一二



偶吟 우음

一一三

輓商山李公 만상산이공 천경  
天慶

一一四

避癘 피러

一一七

輓李遲菴聖哉 만이지암성재

一一七

平川入享日志喜寄士教 평천입향일지희기사교

一一一

尹方伯光顏次退陶先生研經書院韻余乃追和 윤방백광안차퇴도선생연경서원운여내추화

一一二

書 서  
(편지)

答李進汝 답이진여

一一四

與朴定于鼎洛 여박정우정락  
鼎洛

一一七

答郭瑾 답곽근

一一〇

與士教 여사교

一三二

答士教 답사교

一三三

與士教 여사교

一三五

答士教 답사교

一三七

與士教 여사교

一三八

答士教 답사교

一三九

與士教 여사교

一四一

與清彦 여청언삼

一四二

與清彦 여청언

一四三

與清彦 여청언

一四四

答清彦 답청언

一四五

與族孫穉善孝述

答兒岳鎮

一四六

一四八

卷之二

雜著

中庸筭記

謾錄

師門記聞

九九日通九會堂文

一五一

一五三

一八七

一九二

序

百一契序

與浮屠義沾大師序

記

遊公山記

跋

書趙氏紫石硯記後

觀紫巖集

一九六

二〇〇

二〇四

二一四

二一四

箴 잠

來雉箴 래치잠

二一七

銘 명

杖銘 장명

二二〇

頌 송

巡相尹公光顏遺愛頌 순상윤공광안유애송

二二一

皇華二章章六句 황화이장장육구

二二三

告由文 고유문

二二三

槐軒郭公廟宇開基告文

二二五

祭文

祭百弗庵先生文

二二八

祭一庵曹公采臣文

二三一

祭清彦文

二三六

祭從弟景日興旭文

二三九

誄文

誄毅仲文

二四二

行狀 행장

仲兄崇崖公行狀 중형승애공행장

二四六

卷之三 권지삼

附錄 부록

遺事 유사

二六三

行狀 행장

二七五

墓誌銘 묘지명

二八八

墓碣銘 묘갈명

二九七

喘翁先生文集目錄

終

跋文 後記 後記

三〇五 三一三 三一五



천옹선생문집권지일  
喘翁先生文集卷之一

詩

차 김사준 승목유농연정운  
次金士濬 崇默 遊聾淵亭韻  
김사준승목이 농연정에서 노닐면서 차운(次韻)하다

수유장송묘애중  
垂柳長松杳靄中

수양버들 큰 소나무 아득한 아지랑이 속에 있고

구원물색위수풍  
邱園物色爲誰豐

동산 언덕에 비친 물색 누구를 위하여 풍성한고?

객래사월암화진  
客來四月巖花盡

손님 오는四月에 진달래는 다 졌는데

갱교한정섭팔공  
更攬閑情躡八公

다시 한가롭게 정담을 나누며 八公山에 올랐네!

한천여파차계중  
寒泉餘派此溪中

찬샘에서 솟는 물은 이 계곡 안에 흐르고

작유라시세점풍  
作雨他時歲占豐

가물 때 비가 오면 그 해는 풍년을 점치리!

수도공부도위기  
誰道工夫徒爲己

그 누구가 공부를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라 말하느고?

쟁언경제차선공  
爭言經濟且先公

경제를 닦아 말하고 또 선공고<sup>①</sup>를 말하더라.

【주(註)】

①선공(先公) .. 百弗庵 先生の 夫仁洞約에서의 先公庫를 말함.

인지정  
仁智亭

산회수전전기구  
山回水轉轉崎嶇

물은 산을 휘감고 돌아 힘겹게 흐르고

장점연하제일구  
粧點烟霞第一區

노을진 아늑한 곳에 터 잡으니 경치는 제일가는 곳이라.

욕식선생진동정  
欲識先生眞動靜

선생의 참된 동정을 알고 싶다면

試從流峙本源求

시종류치본원구  
흐르는 물 우뚝한 산을 따라 그 근원을 구해야 함이라.

敬次百弗庵先生醉席韻

경차백불암선생수석운  
공경하는 백불암선생의 회갑연 자리 차운

達孝先生帝錫年

달효선생제석년  
극진히 효도하는 선생님께 상제께서 나이를 내리시니

窮心喫緊鍊丹仙

궁심꼭진연단선  
온갖 힘을 다해 심신 수양 힘써 마침내 신선이 되셨네!

也知陰鶴深深響

야지음학심심향  
陰鶴처럼 문혀 있는 훌륭한 선생의 깊고 깊은 뜻을 알았는가?

能徹九重隕自天

능철구중운자천  
능히 구중운궐을 통하여 하늘에서 스스로 내려왔음이라.

次溫溪李先生延諡時志喜韻

차온계이선생연시지희운  
온계李先生이 시호를 이어 받을 때의 뜻을 표한 차운

伯叔河南講道年

백숙하남강도년  
정씨(程氏) 형제분이 하남(河南)에서 도를 강설(講說)할 때

조장생사절지천  
早將生死質之天

일찍이 생(生)과 사(死)에 대해 하늘에 질문했었다.

금조특립천층벽  
襟操特立千層壁

마음과 절개는 천층절벽 위에 우뚝 섰고

학업종성시달천  
學業終成始達泉

학업은 마침내 이루어져 비로소 샘물에 통했다.

성상전승은재강  
聖上傳承恩再降

임금께서 내리신 은혜를 거듭 받으니

운손감격채쌍연  
雲孫感激涕雙漣

후손들은 감격하여 두 줄기 눈물을 흘리네.

가련지사천추감  
可憐志士千秋感

가련하다 지사들이여 긴 세월 회유지감이 있고

유득수명단갈전  
留得修名短碣鐫

수양해서 얻은 이름 짧은 비석에 새겨 머무네!

백불암선생만  
百弗庵先生輓

백불암 선생을 애도함

학절교남이백년  
學絕嶠南已百年

학문의 영광에서 끝이 진지 백년이 되었기에

先賢心法復誰傳

선현의 심법을 누가 다시 전하리오!

運回公岳眞儒作

운이 팔공산에 돌아와 참된 선비 날으시니

八十工夫體用全

八十 공부는 체(體)와 용(用)이 온전하였도다.

平生符訣一方牌

평생의 부결은 한쪽의 경패(敬牌)이니

博約深工敬字知

박문약례 깊은 공부 경자(敬字)에서 알겠도다.

永欲琴書溪舍侍

길이 거문고와 책으로서 시냇가 정자에 모시고자 하였더니

遽然楹夢古堂悲

갑자기 하관(下棺)하여 꿈인 듯 옛집이 슬프도다.

奉次 御題曹節士韻

御題曹節士를 받들어 차운하다

判決危機授命人

위기를 판결하여 사람을 살려준 것은

황원태세월삼순

태세(太歲)로 무신년(戊申年)이고 한달(三旬)이 되었음이라.

당당유지천부장

당당한 뜻이 있어 천(千)사람의 장(長)이 되었고

단단무타일개신

오직 참되어 다른 뜻이 없는 한낱 신하이네!

영기불마응해악

뛰어난 기상은 갈고 닭지 아니 했음에도 바다와 산악에 응하고

성제모상시기린

임금께서 모습을 불으시니 이는 기린이라 하셨네!

정훈운치중회갑

공을 표창하는 운이 고 거듭되는 회갑이다

순원사당갱전친

사당을 멀리서 순찰하며 다시 어버이를 보네!

파계사송죽제용삼흥중

파계사에서 집안 동생 용삼흥중을 보내면서

선창반월은개금

선방 창문의 걸린 반달은 편안히 흉금(胸襟)을 털어내게 하고

안상주서일세심  
案上朱書日洗心

책상 위의 주자책은 날마다 마음을 씻어주네!

앵조봉춘구호우  
嚶鳥逢春求好友

피꼬리는 봄을 맞아 좋은 짝을 구하는데

정운하사출요잠  
停雲何事出遙岑

머물던 구름은 무슨 일로 먼 산마루에서 나오는가?

부생활계오유연  
浮生活計吾猶戀

덧없는 인생은 나도 오히려 간절하네

청계진연자미심  
淸界眞緣子未深

맑은 세상 참된 연분은 자네도 깊지 않네!

분수백화루하거  
分手百花樓下去

서로 떨어져서 백화루 아래에서 떠나가니

불승이한각침음  
不勝離恨卻沈吟

이별의 한을 이길 수 없어 조용히 시만 읊고 있다네!

효기  
曉起

새벽에 일어나서 一七八七年

수각동창서기생  
睡覺東窓曙氣生

잠에서 깨어나니 동창에 새벽 기운이 살아나고

천광개처차심명  
天光開處此心明

맑게 갠 하늘빛 열린 곳에 이 마음도 밝아지네!

진원홀득성성체  
眞源忽得惺惺體

참된 근원 문득 얻으니 스스로 깨달은 이 몸

지파조래의필맹  
只怕朝來意必萌

다만 아침이 되면 생각했던 것이 싹틀까 두렵도다.

정이 농은급  
呈李聾隱 級

李聾隱 級에게 드림

육육봉서슈기다  
六六峯西淑氣多

六六봉 서쪽에 맑은 기운 많으니

수운심처적인가  
樹雲深處碩人家

수풀 우거진 깊숙한 곳에 선비의 집이 있네!

평생활계서서재  
平生活計詩書在

평생 생활은 시(詩)와 서(書)에 있으니

장구소요갱약하  
杖屨逍遙更若何

지팡이 짚고 미투리 신고 산책을 다시 함이 어떠한가?



성친묘  
省親墓

아버이 묘소에 성묘하고

추백공산상  
楸栢公山上

산소를 팔공산 위에 모시니

성상이 십삼  
星霜이 십삼

했수로 二十三年이 되었네!

평생풍수한  
平生風樹恨

평생 오래 봉양 못한 한이

금일최난감  
今日最難堪

오늘에 가장 난감하네!

알선사묘  
謁先師墓

세상을 떠난 스승의 묘를 찾아 뵈옵고

선생대매오무기  
先生大寐寤無期

선생님의 길은 잠은 깨어날 기약 없으니

오도오호수초비  
吾道嗚呼宿草悲

우리의 도가 애달파 잠자는 풀도 슬프도다.

우글반년 투잠극  
憂窟半年偷暫隙

근심 걱정 반년 만에 잠깐 틈을 내어

신춘삼월전신의  
新春三月展新儀

새봄 삼월에 새롭게 의례를 펴리라.

무신원조  
戊申元朝

一七八八年 새아침

운영풍광만목신  
雲影風光滿目新

저 하늘과 이 땅의 눈에 띄는 것이 다 새롭고

건건천덕야래신  
乾乾天德夜來新

쉬지 않고 천덕(天德)①이 밤에 와서 새롭구나.

등전백발환다괴  
燈前白髮還多愧

등불 앞에 백발로 돌아온 것이 부끄러우나

교저심신일일신  
敎著心身日日新

가르치고 저술하는 심신이 날마다 새롭기를 원하노라.

【주(註)】

①천덕(天德) : 만물 생성의 하느님의 덕.

除夜 제야  
그믐날 밤

五十三年醉夢行

五十三년이 취한 꿈속에 가버리고

空然雙鬢雪莖成

공연히 두 줄기 구레나룻수염이 백설(白雪)이 두었네!

生來性拙無他技

라고난 성품이 졸렬해 다른 재주 없고

老去謀疎有底營

늙어가도 생각이 소홀하니 무슨 경영 있겠는가?

稚女欲眠携小枕

어린 딸은 자려고 작은 베개 끌어가고

瘦妻多事坐深更

여윈 아내는 일이 많아 깊은 밤에 앉아 있네!

任他志業時俱往

지업은 남에게 맡기고 세월도 함께 가니

枯落窮廬歲暮情

몰락하여 가난한 집이 한해를 보내는 정성일체!

병중우음  
病中偶吟

병중에 우연히 읊다.

음한일침동경순  
吟寒一枕動經旬

찬 목침 베고 신음하면서 움직여 열흘을 지나니

백수궁려배고신  
白首窮廬倍苦辛

머리 희고 가난한 집이라 고생은 배가 되네!

유촉구건수욕야  
油燭久乾愁欲夜

기름 등잔 마른지 오래되어 수심 많은 밤이 되려고

포금투냉협장신  
布衾透冷驗將晨

피 놓은 이불 차가워 오니 곧 새벽이 되겠구나.

상량망촌전고목  
商量方寸全枯木

헤아려 생각하니 내 마음은 고목이 되었고

점검경앙기숙진  
點檢傾盎己宿塵

기우러진 동이를 살펴보니 이미 먼지가 쌓였구나!

소양종무안씨락  
素養縱無顏氏樂

평소 힘쓴 안씨(顏氏)의 즐거움이 없구나

금교우자병오진  
肯教憂字病吾眞

즐거우자(憂字)①로 하여금 나의 스본을 병을게 하리오.

【주(註)】

① 丁자(憂字) : 근심무자

칠계분황시정사앙종노이성재동항제군인작공산지유이귀음증일절  
漆溪焚黃時鄭士仰宗魯李聖哉東沆諸君因作公山之遊而歸吟贈一絕

칠계에서 분황 때에 정사앙과 이성재 제군과 함께 공산(公山)에서 놀이하고 돌아오니 한 절을 읊어 주다.

연하쌍수포선연 아름다운 경치 양 소매에 넣으니 신선과의 인연이 배부르고  
烟霞雙袖飽仙緣

소장풍류각과연 젊은이와 늙은이의 풍류가 과연 각각일세.  
少長風流各果然

반도상요정미진 중도에 서로 만나 정을 다 나누지 못하니  
半道相邀情未盡

막장준주촉귀연 슬단지 다 비웠다고 돌아가라고 독촉 말게.  
莫將樽酒促歸筵

齋居夜吟

재거야음  
재사에서 거처하며 밤에 읊음

寄寓楸齋久

추재에 오래 몸을 붙이고 사니

生涯澹一緇

생애는 담담한 한 증과 같구나.

愁多眠不穩

시름이 많아 잠오지 않으니

四月夜支離

사월야 지리  
四月의 밤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族孫淸彦 盆梅用李穉謙 載延韻

족손 청彦의 분매의  
이 치겸의 운을 쓰다.

山意衝寒忽放榮

산은 추위를 이겨 갑자기 꽃을 피게 하니

深衣玉色見先生

옥색 심의(深衣)① 입은 선생을 보았네!

조종남 설소소 냉  
早從臘雪疎疎冷

수반춘화적적명  
羞伴春花's的的明

영화서창수익호  
影畫書牕瘦益好

향전유실염수쟁  
香專幽室艷誰爭

한래색공순침소  
閑來索共巡簷笑

인득건곤조화정  
認得乾坤造化情

육음천지일지영  
六陰天地一枝榮

기재고근염염생  
氣在孤根苒苒生

소저경향원조화  
疎著輕香元造化

냉수청영자분명  
冷垂清影自分明

일찍이 설달에 눈이 와서 드문드문 차가운데

부끄러운 듯 봄꽃을 짝하여 환하게 되었구나.

그림자가 서실 창에 비추니 파리한 게 더욱 좋고

향기는 침침한 방에 가득하니 아름다움을 누구와 다투고?

조용히 와서 함께 처마를 돌며 웃으니

천지조화의 실상을 알아 얻었네.

넓은 천지에 한 가지만 영화롭고

기운은 외로운 뿌리에서 나서 무성하게 자랐네.

드물게 나타나는 가벼운 향기는 꽃을 만드느니 근본이고

차가 드리운 맑은 그림자는 자신이 분명하네.

幽人趣味春風暖

숨어사는 사람의 취미는 봄바람같이 따뜻하고

處士精神臘雪爭

고요한 선비의 정신 선달 눈과 다투네.

欲向驛樓相折贈

역루에 가고자하는 마음 서로 꺾어서 보내니

樹雲斜日惱遙情

구름 속에 저는 해가 멀리 가는 정을 괴롭히네.

【주(註)】

① 深衣 : 높은 선비가 입던 겉옷.

차증이 지국 증신  
次贈李持國 曾臣

이 지국에 보내는 음

喜鵲今朝報客來

오늘 아침 기쁜 까치 소리가 손님 온다 알리니

十年情味一傾盃

십년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한잔 기우려 보세.



불사심계청여수  
不辭深契清如水

최선외용담사매  
最羨衰容澹似梅

지채욕수사반삼  
詩債欲酬詞反澁

전기불이가하최  
前期不易駕何催

공산최호연하승  
公山最號烟霞勝

야역귀인수구회  
也亦歸人首九回

만곡노언  
輓郭魯彦

곽노언을 만함

깊은 교제를 사양치 않으니 맑기가 물과 같고

가장 부러운 것은 여인 얼굴 모습 맑기가 매화 같은 것이더라.

받은 시에 답하려하니 도리어 글이 잘 되지 않고

앞선 기약이 쉽지 않은데 행차는 어찌 재촉하는고?

팔공산 경치가 가장 좋다 이름나서

오고 가는 사람들 아홉 번이나 머리를 되돌려보네.

문이남촌상처아  
問爾南村相杵兒

천소하사철용가  
前宵何事撤春歌

문노니 너 남촌의 방아 찧는 아이는

어떤 일로 어젯밤에 방아 찧는 노래를 건넸는지?

爲言衰草空山土

埋却仁人不忍歌

少知其面老知心

自卜芳鄰誼轉深

丹旆可憐空谷去

伊人難作九原深

難弟難兄樂善人

尋常談笑見天真

同年厭世緣何故

難詰冥冥造化眞

말하기를 쇠잔한 풀과 비어있는 산허리로

어진 사람을 묻어 차마 노래를 못하였다네.

젊어서 그를 만나 늙어서는 마음을 알게 되니

스스로 점쳐서 좋은 이웃 사귀어 정이 깊었네.

상여가 빈 골짜기로 가는 것이 가련하고

저 사람은 저승 집을 짓는 게 어렵겠구나.

형님 아우하며 착한 것을 즐기던 사람들

보통 웃고 말할 때에도 천진함을 보았네!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으니 무슨 까닭인가?

명명한 조화의 진실을 힐문하기 어렵도다.

차소유정운  
次小有亭韻

소유정 차운

천은 동남일수회  
天圻東南一水廻

저 멀리 하늘 언덕 동남쪽에서 한줄기 물이 돌아오니

선생정반자손가  
先生亭畔子孫家

선생님의 정자 가까이 자손들의 집이 있네.

동천삼십청허경  
洞天三十淸虛境

경치 좋은 곳 三十리는 맑고 깨끗한 곳인데

일임청산세월과  
一任靑山歲月過

한번 청산에 말져 세월만 지나가네.

만족질의증우진  
輓族姪毅仲 宇鎮

족질의증을 애도함

팔공지산종숙정  
八公之山鍾淑精

팔공산(八公山)에 맑은 정기가 모여

남유칠수출기측  
南有漆水出其側

남쪽에는 칠수(漆水)가 있어 그 절에서 나오네.

칠수 위이 요일곡

칠수는 한 골짜기를 둘러싸며 구불구불 흐르니

천비석인서식학

하늘이 덕 있는 사람을 살 골짜기로 숨겨놓았네.

백불선생원득소

백불선생께서 사시는 장소인데

백수궁거양잠덕

벼슬 없이 궁하게 살면서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덕을 길렀다네.

선생문유자의증

선생님 집에 이름이 의증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소소복습가정학

젊고 어려서는 가정에 관한 학문을 익혀 배웠다네.

기연이수수연미

귀가 크고 이름이 뛰어나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지고행결출류속

뜻이 높고 행실이 맑아 세속에서 벗어났다네.

재관북유선복간

저우성인하고 북쪽으로 예안과 안동 사이에 유학하여

대현유풍문천수

뛰어나게 어진 사람의 남긴 풍습을 듣고 보며 익혔네.

大賢遺風聞見熟

조사형 위귀전원  
早謝荆園歸田園

잠계 도서만사벽  
箴戒圖書滿四壁

거가 무간차손직  
居家無間子孫職

처족쟁추문호책  
處族爭推門戶責

완용상당기거문  
婉容上堂起居問

이안입주감지취  
怡顏入廚甘旨勅

지기평생관이후  
志氣平生寬而厚

허아동인정호독  
許我同人情好篤

불견즉사천즉희  
不見則思見則喜

일월상별회리색  
日月相別懷離索

일찍 가시덤불로 쌓인 곳을 떠나 시골로 돌아와

잠계 도서가 사면 벽에 가득 쌓이도록 하였다.

집에 있을 때는 자손들 직분에 차별이 없었다고

친척 간에 다투어 문호의 책임으로 추대하였다.

정숙한 자세로 부모님 앞에 나아가 동정을 물었고

순한 일들로 주방에 들어 맛이 좋은 음식들을 경계했네.

의지와 기개는 평생 동안 너스럼고 두터웠으며

나와 같은 사람을 사귀어 정이 돈독하였다.

못 보면 생각나고 보면 즐거웠고

날로 달로 서로 이별하면 생각을 품었지.

회문기전산사등  
會文幾剪山寺燈

완리기관계사목  
翫理幾觀溪舍瀑

의친지정점유봉  
懿親之情兼友朋

절시지의심상유  
切惻之義尋常勸

차재의증속유질  
嗟哉毅中宿有疾

수재심복시시극  
崇在心腹時時劇

성자전너거년행  
省姊見女去年行

시시지한한위촉  
時是至寒寒威觸

유방블여이수모  
遊方不與二豎謀

입명기료삼평악  
立命豈料三彭惡

글로서 모이면 몇 번이나 산사(山寺)①의 등불 심지들 끄들었으며

이(理)를 배우려고 몇 번이고 계사(溪舍)②의 폭포를 보러 갔지.

매우 가까운 친척의 정과 친구의 정을 겸하였고

간절히 힘쓴 의리로 범상하게 도왔도다.

슬프다! 의중은 오랜 병이 있는데

마음과 뱃속에 있어 때때로 심하였지.

누이를 찾아보고 딸을 보려고 지난 해에 갔는데

때가 추울 때라 추위가 몹시 심했도다.

함께 놀 방향은 병마와 더불어 피하지 못하였고

천명(天命)을 다랐으나 어찌 삼평악(三彭惡)③을 생각했겠는가?

이백리외고와침  
二百里外孤臥枕

집수무응비친척  
執手撫膺非親戚

신귀불령천불조  
神鬼不靈天不助

기편축수무양약  
岐扁縮手無良藥

북토진미비오향  
北土儘美非吾鄉

수교근거하령축  
誰教君去遐齡促

차재의증명의부  
嗟哉毅仲命矣夫

고원초채산천격  
故園迢遞山川隔

설학풍도십이월  
雪虐風饑十二月

가련단조심주옥  
可憐丹旆尋舊屋

二백리 밖에서 의로이 배개 베고 누웠어도

손을 잡고 가슴을 어루만져도 친척만이 아니었지.

귀신도 영험치 않고 하늘도 도우지 않아

기백이와 편작이가 손을 못 쓰니 좋은 약 없었네.

북쪽 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고향 아닌데

누가 자네를 보내어 오래 살지 못하게 재촉했는고?

슬프다! 의중이며 그것도 명일진저.

고향은 멀고 멀어 산천도 막히었네.

눈은 사납고 바람은 몹시 부는 선달에

가련하다! 상여는 살던 옛집을 찾는구나.

유 친 재 당 유 형 노  
有親在堂有兄老

호 우 지 성 난 명 목  
孝友至誠難瞑目

유 자 유 자 일 미 관  
有子有子一未冠

유 여 유 여 호 천 곡  
有女有女號天哭

차 차 오 도 증 천 거  
嗟嗟吾道重天去

욕 상 창 창 소 아 억  
欲上蒼蒼訴我臆

유 족 인 답 서 주 로  
有足忍踏西州路

유 이 인 청 산 양 직  
有耳忍聽山陽笛

구 원 여 작 오 종 군  
九原如作吾從君

세 상 수 여 개 심 곡  
世上誰與開心曲

아직 부모님은 살아 계시고 형님도 있는데

호도와 우애가 지극하니 진실로 눈감기가 어렵겠구나.

아들은 있어도 아들 하나는 아직 미성인데

딸이 있어 하늘보고 부르며 통곡하네.

슬프고 슬프다! 우리의 길이 멀고 먼 하늘나라로 가니

푸른 하늘에 올라가서 나의 마음을 호소코자 하네.

발이 있어도 서쪽으로 가는 길을 밟는 것을 참았고

산 남쪽에서 부는 피리소리 위가 있어도 듣는 것을 참았다.

저승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나도 자네를 따를 것이며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간절하고 애트한 마음을 열겠는가?



만사오호공이의  
萬事嗚呼空已矣

만사가 아! 슬프다 비어 있을 뿐인데

오십년광일풍촉  
五十年光一風燭

오십년 나이가 하나의 바람앞의 등불인 것을

종고수단개시명  
從古修短皆是命

옛부터 길고 짧은 것이 것이 모두 명인데

종요필사역하책  
終要必死亦何憾

끝내는 반드시 죽으니 또한 어찌 슬퍼하겠는가?

비래료사적료사  
悲來聊寫寂寥詞

슬픔이 오기에 오로지 쓸쓸한 글을 쓰니

차재의증하시적  
嗟哉毅仲何時覲

슬프다! 의증이여 어느 때에 다시 볼 수 있을까?

【주(註)】

① 산사(山寺) : 절. 사찰(寺刹)。

② 계사(溪舍) : 백불암선생께서 강학(講學)하시던 정자(北溪精舍)。

③ 삼평악(三平岳)고부(古阜) : 주유기 사람의 한이 돌아오라고 세 번 부를 부르는 것。

명동 효음  
明洞曉吟

명동(現在 대구 동구 도동)에서 새벽에 읊음

청유경잔수  
聽溜驚殘睡

물방울소리 듣고 놀라 덜 깬 잠에서 일어나

개창우시청  
開窓雨始晴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개이기 시작하네.

간송유남색  
澗松猶臘色

시냇가 소나무는 아직 겨울 빛깔 같은데

산조이춘성  
山鳥已春聲

산새는 이미 봄소식을 전해주네.

압로정 송별 조우여  
狎鷺亭送別趙佑汝

압로정에서 조우여를 송별하면서

휴과장교도압정  
携過長郊到狎亭

손잡고 뱃바다 길일을 지나 압로정에 도착하니

노래분수배여정  
老來分手倍餘情

늙어가며 서로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나니 남은 정이 배가 되네.